전남 '노후 관광지 재생' 본격화

신안 대광해수욕장·해남 땅끝관광지 올 사업 추진 산책로 조성·무장애 데크길 보수···관광 활성화 기대

화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고 깨끗하고 안 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'노후관광지 재 생사업'을 펼친다.

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조성 후 10년이 지난 관광지에 ▲장애인・노약자 등 관광취 약계층을 배려한 무장애(Barrier-Free) 시설 등 설치 ▲지역 전통문화・예술 콘텐 츠 관광자원화 ▲노후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체험·체류형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 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이다.

전남도는 올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남도내 관광특구(목포, 구례)를 포함한 36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

전남도는 '포스트 코로나'에 대비해 변 다. 이 가운데 신안 대광해수욕장과 해남 땅끝관광지가 전문가 평가(서면, 현지 실 사)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, 올해 39억원 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게

> 신안 대광해수욕장은 지난 1990년 관광 지로 지정됐으며, 내년에 임자도가 연륙될 것을 대비해 관광지 리모델링이 시급한 지 역이다. 특히 전국에서 가장 길고 넓은 해 변을 4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인위 적인 시설 도입을 배제하며 샤워장, 화장 실 등 현재 시설을 전면 개축할 계획이다. 이와 함께 해변 뒤 소나무 숲길을 경유해 해변가로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하며, 신

안튤립공원, 전장포항 등 주변 관광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광안 내판도 설치한다.

지난 1986년 관광지로 지정된 해남 땅 끝관광지는 국토종단길 걷기 등 전국에 잘 알려진 관광명소임에도 시설이 노후돼 재 생사업이 필요한 곳이다. 이번 사업을 통 해 땅끝탑과 전망데크를 SNS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명소로 재정비하며, 산책로와 무장애 데크길 보수 사업도 추진한다.

윤진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"관 광지로서 매력은 있으나 시설노후화와 관 광콘텐츠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노후 관광지를 재정비하겠다"며 "이를 통해 '코 로나19' 이후 지친 일상을 달래줄 안전하 고 청정한 관광지로 활성화 시켜가겠다"고

/윤현석 기자 chadol@kwangju.co.kr

김영록 지사 "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"

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 19 사태와 관 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, 포스트 코 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책을 당부했다. 전 남은 정부 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방역체 계로 인구 10만 명당 0.8명으로, 가장 낮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으며, 지역사회 집단감 염이나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산 사례도

김 지사는 6일 "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오면서 큰 자신감과 함께 배려와 협 력의 가치를 느낀 소중한 시기였다"고 말

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가족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"지역 내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넘게 발생하지 않고, '사회적 거리두기'도 '생활 속 거리두기'로 바뀌어 새로운 희망

과 용기를 얻었다"고 말하고 "이는 도청 전 직원들의 전례 없는 감염증과 싸워준 덕분 이다"며 노고를 격려했다.

'코로나19' 피해지원과 관련해 김 지사 는 "취약계층 전남형 긴급생활비를 비롯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을 지원했다"고 강조 하고 "특히 전남이 첫 시행한 '친환경농산 물 꾸러미' 배달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됐으 며 경북 의료진·환자에게 보낸 '사랑의 도 시락'도 국민적인 화제를 모았다"고 설명 /윤현석 기자 chadol@



6일 오후 광주 동구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 인공지능(AI)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'동구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 랫폼 구축 킥오프(Kick-Off)' 행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갑석 국회의원, 이병훈 국회의원 당선인, 임택 동구청장, 이삼용 전남 대병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시, 전남대병원에 AI 헬스케어 창업 플랫폼 구축

광주시가 인공지능(AI) 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헬스케어 창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.

광주시는 6일 "동구와 함께 병원, 개인 의료 자료 등을 활용한 제품 개발, 사업 화를 추진하는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 성 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했다"고 밝혔

1단계 사업은 광주시, 동구가 주관하고 전남대병원, 한국 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

원 등이 참여한다.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스타트업 커뮤니티 센터, 전남대병원에 개 방형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을 조성한

광주시 등은 35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인프라를 조성한다.

2단계 사업으로는 국비 15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 융복합 제품 개발, 사업화 지원 을 본격 추진한다. 스타트업 60개사, 양질 의 일자리 1500개 창출, 지역생산 유발효 과 500억원 등이 목표다.

광주시는 오는 12월 AI 산업 융합 집적 단지 착공을 목표로 이달 중 기본・실시 설 계에도 착수할 예정이다. 14개 연구과제 사업자도 선정해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내 본격적으로 AI 산업을 육성한다.

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"인 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은 자치 구, 병원, 연구기관 등이 역량과 기술을 결 합하는 모델"이라며 "유망한 창업 기업이 광주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 도록 지원하겠다"고 말했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

민주당 광주 북구을 이형석

"지방분권 강화해 지역발전 이끌것"

5·18역사왜곡처벌법 꼭 제정 광주형일자리 완성 위해 협력 AI 융·복합 인재 육성 추진 본촌산단, 청년친화형 조성

"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역동적 으로 추진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, 적극적인 활동으로 모 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" 4·15 총선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

이형석 당선인은 6일 광주시의회 의장, 청와대 비서관,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풍부한 정치·행정 경험을 살려 지 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.

그는 "민주당에 압도적인 성원을 보 내주신 호남지역민께 감사 드리고, 전국 최다 득표와 최다 득표차로 당선될 수 있 도록 지지해주신 북구 유권자께도 감사 드린다"면서 "민주당과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는 바로 산적한 광주와 북구 의 현안을 해결하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.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"고 약속했다.

또 "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이 양이 수반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,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양질의 치 안 서비스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내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"라며 행정안전 위원회 활동 의지를 밝혔다.

개인적으로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5·18 역사왜곡처벌특 별법을 제정을 손꼽았다. 그는 "이미 국회가 제정한 법률적,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·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



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 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다. 민주당 5·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 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를 단죄 할 수 있는 5·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제정하겠다"고 강조했다.

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도 불태웠다. 그는 "이번 총선에서 광주. 전남 시민들의 힘으로 호남 정치 세대교 체가 확실히 이뤄졌다"며 " 제21대 국회 에 입성하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계파 정치에서 벗 어나 원팀의 정신에 기반해 연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"고말했다. 이 를 통해 "확고한 민주당 지지세력인 호 남의 바람대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치 적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 다"며 "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가치를 지 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선점하고 과감한 정치적 도전으로 호남 정치를 복

원하겠다"고 말했다.

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추진 도 약속했다. 그는 "광주의 최대 현안은 광주형 일자리라고 생각한다. 노사상생 형 일자리가 첫 사례로 광주에 만들어졌 는데 사업 추진에 일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염려스럽다"며 "광주형 일 자리 완성을 위해서는 노동계와 초기 협 의했던 사항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"고 분석했다. 또 "지난 1998년 이후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"면서 "광주 형일자리인광주글로벌모터스는새로운 '제조업 르네상스'를 만들어가는 첫 단 추이므로 반드시 광주형일자리를 성공

광주 현안 사업인 AI산업 활성화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다. 그는 "올해 초 국 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돼 인공지능 산업 육성 토대가 마련됐다. 광주로서는 지금이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만들 수 있는최적기다"면서 "산업생태계를 선도 할 인공지능 관련 대기업을 광주에 유치 하겠다"고 밝혔다. 또 "인공지능 창업 및 중소기업 등 초기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인공지능창업보육센터를유치하고 빅데이터 활용 중심의 융·복합 인재 육 성을 추진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시켜야하는 당위성과 책무가 있다"고 덧

지역구 현안 사업에 대한 애정도 드러 냈다. 그는 "인공지능 집적화 단지를 조 기에 조성하고, 노후화된 본촌 산단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를 구축해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조성하 겠다"면서 "광주운전면허시험장 북구유 치로 광주 시민이 그동안 나주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이동해야했던 불편을 해소 하겠다"고 말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광주시 버스정류소 61곳에 광주다움 입힌다

5·18충혼탑, 무등산, 서석대 등 이미지 형상화

산, 5·18 충혼탑 등 광주의 이미지로 형 상화한다"고 6일 밝혔다.

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과 서 석대 주상절리, 5·18 충혼탑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광주만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 한 것이다.

USB 포트, 무선충전 시설 등을 함께 설 치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.

또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어린이 등의 이용이 많은 10곳은 보도블록 제거, 턱 낮추기, 화단 철거, 점자블록 연장 등 무 장애 정류소로 만든다.

이용이 많지 않아 시설이 낙후한 도심 외곽 버스 정류소는 개폐식 문, 태양광 LED 조명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한다.

시는 이용자 수가 많은 정류소 214곳 에 버스도착안내단말기도 추가 설치한

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"민관 협업을 통해 장애인, 비장애인 모두가 보 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소 시설을 개선하겠다" 고 말했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광주·전남 광역·기초의회, 국외여비 전액 삭감

네이버에서 **단풍미인쇼핑몰**을 검색 해 보세요 ▼

광주시의회를 비롯한 광주·전남지역 광역·기초의회가 코로나 19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국외여비 등을 전액 삭감하기

광주시의회는 6일 임시회에서 올해 국 외여비 등 국제교류 활동 예산을 전액 삭 감했다. 의원들 국외여비 1억원, 출장 수 행 여비 2200만원, 외빈초청 여비 1200

https://www.danpoongmall.kr

만원 등총 1억7000만원이다.

삭감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. 앞서 광주 동구의회와 남구의회를 비 롯해 여수, 순천, 구레, 강진 등 전남지역 각 자치구의회에서도 올해 국외 여비 예 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.

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